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권

유마경 대강론

백봉 김기추 | 불광출판부 | 2001

연꽃의소리 박규표 대표

### 인연은 스스로 만드는것

경전을 아무 의식 없이 독송하다 갑자기 막혀지는 부분이 있다. 눈으로 읽는 경전해설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 나에게서는 그러한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대목이 <반야심경>의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부분과 <유마경>의 '중인불칭 우이안지(衆人不諍 友而安之)'라는 구절이었다.

나는 절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좋았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한글반야심경>의 '뒤바뀐 생각을 여의어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는 구절을 읽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은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옳은 것을 크게 알고, 그른 것을 옳은 것이라 믿으며 살아온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났던 것이다. 삶의 바른 길을 제

소 하 머  
도 움 을  
청 하 지  
않더라도  
주 변 의  
아픔이나  
불편함을  
들러보며  
먼저 손  
을 내미  
는 사람  
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빛이 되라'는 <유마경>의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은 후 내 생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는 못했다. 사소한 일에는 도움의 손길을 잘 내밀다가도 정작 중요한 일에는 뒤로 물러설 때가 많다.

요즘 불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

### 경전을 시작하게 한 '반야심경' 삶의 태도 바꾸게 한 '유마경'

로 알려줄 지침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나에게 경전 공부할 하게 한 구절이었다면,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한 것은 <유마경>이었다.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낱낱이 설명하는 <유마경> 불광품의 '중인불칭 우이안지(衆人不諍 友而安之)'의 구절은 우리에게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스스로 나아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불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불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도움을 청해도 내 형편이 불편하면 거절할 굴러부터 하게 되는데, 청하지 않아도 빛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누가 굳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

를 자주 듣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자들이 '자기 수행'이라는 이름하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로 포교에 게으른 것은 아닌가. <유마경>의 '중인불칭 우이안지(衆人不諍 友而安之)'의 구절은 우리에게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스스로 나아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불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불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도움을 청해도 내 형편이 불편하면 거절할 굴러부터 하게 되는데, 청하지 않아도 빛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누가 굳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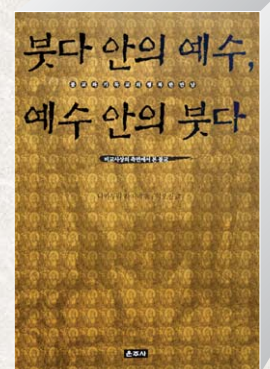
내 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쓰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j@buddhapia.com

譯者, 책을 말한다

# 불교와 기독교 이해의 폭 넓히는데 기여



저자 나카무라 하지메(오른쪽) 교수와 역사 오진 스님



붓다안의 예수 예수안의 붓다 저자 나카무라 하지메|역자 오진 스님|운주사|1만4000원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시대로 마치 전 세계가 하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많은 나라들이 내적 외적으로 분쟁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민족이나 종족 간 문화 또는 종교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피폐한 역사의 현장에 내던져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이 현저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종교 간 다원적 공존과 관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자신의 신앙과 타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상호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과 올바른 이해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신 충돌은 대부분 상호 사소한 오해와 무지에서 시작된다. 특히나 세계와의 접촉면이 급격하게 넓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그에 대한 준비가 더욱 요구된다. 갈등과 충돌을 줄이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주요 종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등에 대해 알아야 함은 물론, 각 종교들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등의 생활 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 종교 간 비판과 반목이 아닌 '공존'과 '관용'의 정신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은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책 <붓다안의 예수, 예수안의 붓다>는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가 1960년대 하버드대학에서 공개 강의한 초고를 개정 발전시킨 것이다. 당시의 청중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서, 저자는 이 책을 서양인들(기독교인)을 위한 불교 강좌로 꾸몄다. 즉 서양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도로서의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견주어 불교의 교리나 사상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는 불교의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또는 반대로 동일한

관점에서 불교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즉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종교가 갖는 유사점을 찾아내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요하게는 두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종교로서의 성격, 붓다와 예수 두 교조의 생애, 기본 교리, 인간에 대한 진단과 처방, 교단의 성립과 발전, 윤회, 구원 등의 주제를 다룬다.

저자인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1999년 작고)는 인도철학과 불교학 그리고 동양사상 및 비교사상에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삼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이다.

나카무라 박사는 생존 시 기독교와 불교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한 이 책이 한국 국민들에게 소개되길 원했다. 역사 역사 비교종교학에 관심이 있던 터라 이 책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여 한국에 소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능력이 부족하고 인연이 닿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프리카니스탄 피랍사태 등 한국의 선교활동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이고 광적인 선교활동이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출판을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 이렇게 부족한 무릎쓰고 만용을 부리게 되었다.

역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멀리 한국의 상황은 이 책의 필요성과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다. 최고 권력층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편향과 배타성이 도를 넘어, 다른 종교를 자국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종교에 대한 맹신과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결코 사회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평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쪼록 종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나카무라 박사의 메시지가 한국의 종교계와 지식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자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평화와 안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노력할 때만 향유할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이다. 이 책이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여, 한국 사회가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6월 24일 일본 동경 여로에서 역자 석오진(釋悟眞)

## 갈등·충돌 줄이려면 이해·배려 전제 '공존'과 '관용'의 정신 길러야 해

### 관점에서 불교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즉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종교가 갖는 유사점을 찾아내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요하게는 두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종교로서의 성격, 붓다와 예수 두 교조의 생애, 기본 교리, 인간에 대한 진단과 처방, 교단의 성립과 발전, 윤회, 구원 등의 주제를 다룬다.

저자인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1999년 작고)는 인도철학과 불교학 그리고 동양사상 및 비교사상에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삼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이다.

생명 에너지를 궁핍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

**연화기공(蓮花氣功) 수련**

기도할때나 수련할때 그림이 보이며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이 보이는 스님, 불자님 들께 높은 차원의 기공비법을 전수 합니다.

▶대상: 스님 및 일반불자

- ① 천목(天目), 천문(天門)을 여는 비법 전수
- ② 기공의 최고봉인 五氣朝天, 三契聚精 수련방법 전수
- ③ 영가를 보는 비법전수
- ④ 병의 치료비법 전수
- ⑤ 병치료 비법 전수
- ⑥ 인체 투시 기능 개발 비법전수

※ 신내림 곳 하였으나 효험이 영하지 못한 분들에게 높은 차원의 비법 전수하여 소원 성취하게 합니다.

※ 수년간 수련과정에서(수련하지 않은분 포함) 머리속에서 번개치고,우뢰울고,야밤삼경에 태양을 보시는 분들에게 높은경지로 이끌어 줍니다.

※ 각종 질병 환자에게 기치로 하여 드립니다.

※ 본기공 수련에 참석하시는 분은 평생회원으로 모십니다.

관음정사 연화선원 02)943-8573/010-4500-8234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갈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헤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한글한문 (경 용) **불교상용의식집**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용 소개

- ① 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 ② 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써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 ③ 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④ 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화 절제하고 실무자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 ⑤ 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성

- 제 1권 : 예경:각경편
- 제 2권 : 천도:시식편
- 제 3권 : 수계:방생편
- 제 4권 : 장의편
- 제 5권 : 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앞으로 상용의식집을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용의식집을 보신 후 격려전화를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덕 합장 -

문의 전 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농협: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구입 가능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전통적 5년 / ※ 무문관 / ※ 범암록  
※ 천부경 / ※ 금강경 / ※ 선심명 / ※ 중도가  
※ 반야심경 / ※ 선문염송전30권 중 11권  
※ 환단고기 전5권 / ※ 범용선사 심명  
※ 선가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앞물에 국화꽃 곁고 뚝산에 찻논 회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복제로세상을복사함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http://www.zenparadise.com)